

작가를 중심으로 고찰하는 국내 국공립미술관 네트워크 연구

An Analysis of the Network of National and Public Art Museums in Korea Focusing on Artists

연구식¹

Kusuk Yun¹

요 약

본 연구는 작가를 중심으로 국내 국공립미술관 간의 연결 구조를 탐구하고, 이를 통해 미술관이 구현하는 정체성과 특성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표본으로 경기도미술관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2014년부터 2023년까지 해당 미술관이 소개한 작가 데이터를 미술관 홈페이지를 비롯한 각종 온라인 자료를 통해 생성하고, 같은 방법으로 형성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을 비롯한 7개의 국내 대표 미술관 작가들의 데이터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경기도미술관은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작가들을 활발하게 공유하면서도 전국적으로 근현대, 원로, 중견, 젊은 작가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특히, 근현대작가들을 다수의 미술관과 공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부산과 대구미술관에서 뚜렷하다. 또한,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중견 및 젊은 작가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이전 세대와 차별화를 이루는 다양한 미술장르를 발전시킨다. 이 밖에도 여러 미술관이 나타내는 고유의 성격을 수많은 작가의 다양한 예술적 특징을 중심으로 형성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경기도미술관은 타 미술관과의 교류와 함께 지역작가, 해외 및 재외동포 작가를 지속해서 소개하고, 특정 장르 및 차별화된 미술 유형 등을 통해 기관 고유의 특징과 정체성을 형성한다. 이처럼 본 연구는 미술관들의 네트워크 구조와 개별 기관의 특이성을 밝힘으로써 국내 미술계와 미술관별 운영 전략을 이해하는데 있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핵심어 : 미술관, 공유와 교집합, 특징과 정체성, 네트워크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network structure among national and public art museums in South Korea, focusing on artists to understand the institutional identities and characteristics of each museum. The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GMoMA) is the primary case study. Artist data from 2014 to 2023 were collected through the museum's website and other online sources, then compared to data from seven major public museums, including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and the Seoul Museum of Art, using a consistent methodology. The findings show that GMoMA actively shares artists with institution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while also engaging a broad range of artists-modern, contemporary, senior, mid-career, and emerging-nationwide. It notably shares many modern artists with other museums, especially the Busan and Daegu art museums. GMoMA also emphasizes mid-career and emerging Seoul-based artists, supporting diverse artistic genres that distinguish it from earlier generations. In addition,

¹ Fine Art, Sejong University, Seoul, Korea [Adjunct Professor]
e-mail: yonkusuk@hanmail.net

Received(April 21, 2025), Review Result(1st: May 18, 2025), Accepted(June 9, 2025), Published(June 30, 2025)



© 2025 The Authors. Published by NCISS.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licensed under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 4.0 International License.
To view a copy of this license, visit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GMoMA incorporates artistic characteristics from other museums while consistently introducing regional, overseas Korean, and international artists. These practices shape its distinct institutional identity through specific genres and differentiated approaches. By analyzing museum networks and institutional particularities, this study provides insights into the operational strategies of Korean art museums and the broader structure of the contemporary art field in South Korea.

Keyword : Museums, Sharing and Intersection, Characteristics and Identity, Network

1.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1986년 국립현대미술관(이하: MMCA) 과천관 개관을 시작으로, 서울시립미술관(이하: SeMA) 서소문(1988), 광주(1992), 부산(1998), 대전(1998), 전북(2004), 경남(2004), 경기(2008), 대구(2011), 전남(2021), 울산(2022) 등 여러 광역지자체에서 미술관이 차례로 개관하였다. 2000년대 이후에는 포항(2009), 수원(2015), 청주(2016)와 같은 기초 지자체에서도 시립미술관을 건립하여 한국 미술계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현재에는 충남, 인천, 화성, 춘천 등 여러 광역·기초 지자체에서도 미술관 건립이 추진되고 있거나 논의되며 공립미술관 ‘제2 중흥기’를 예고하고 있다 [1]. 미술관들의 팽창 속에서 각 기관은 정체성 구현과 함께 특색있는 기관 운영 방향 수립에 매진한다. 미술관에 대한 이러한 관심은 학계에서 미술관 공간과 전시 관련 연구를 통해 뚜렷하게 표출되었다 [2-4]. 하지만, 미술관 연구는 자연스럽게 ‘작가’라는 창작 주체와 연결된다. 작가들이 미술관과 또 다른 미술관을 왕래하며 활동한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기관 특징에 대한 탐구는 서로 다른 작가들의 이동 상황 안에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의에 따라 본 논문은 특정 미술관이 작가를 중심으로 다른 미술관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고찰하고, 이를 통해 기관 고유의 정체성과 연관된 다양한 특징을 탐구한다. 이를 위해 서울과 지방의 경계인 경기도에 있는 경기도미술관(이하: GMoMA)을 표본으로 하여 ‘수도권’의 관점에서 국내 국공립미술관 작가 네트워크를 조사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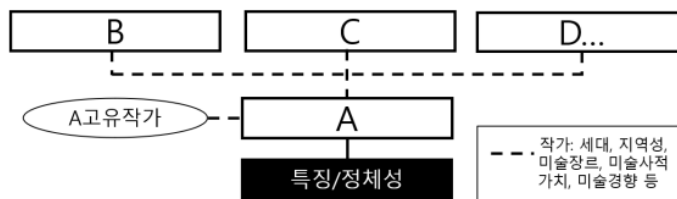
1.2 연구 대상 및 범위

본 연구의 시기는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으로 한다. GMoMA와 작가를 공유하는 대상 기관으로 MMCA, SeMA, 대전시립미술관(이하: DMA), 수원시립미술관(이하: SIMA), 광주시립미술관(이하: GMA), 부산시립미술관(이하: BMA), 대구미술관(이하: DAM)과 같은 지역을 대표하는 광역·특례시 중심의 국공립미술관으로 설정한다. 언급된 미술관 중 DAM을 제외한 다른 기관들은 여러 개의 분관을 운영한다. MMCA의 경우 국내 유일한 국립미술관으로서 MMCA 서울관, 과천관, 덕수궁관, 청주관, 고양창작스튜디오(이하: 고양), 창동레지던시(이하: 창동)를 포함한다. SeMA의 경우 서울을 대표하는 시립미술관으로 SeMA 서소문본관(이하: 서소문관), 북서울미술관(이하: 북서울관),

남서울미술관(이하: 남서울관)과 같은 여러 분관과 난지창작스튜디오(이하: 난지), SeMA 창고(이하: 창고), SeMA 벙커(이하: 벙커)와 같은 다양한 연계공간을 포함한다. SeMA의 또 다른 분관인 백남준기념관과 미술아카이브는 비중이 미약하여 연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SIMA의 경우 행궁동 본관을 중심으로 만석전시관, 아트스페이스광고, 복수원전시관과 같은 분관을 운영하지만, 대부분의 비중 있는 전시는 본관에서 개최됨을 강조하고자 한다. GMA의 경우 하정웅미술관과 G&J갤러리 그리고 BMA가 운영하는 이우환 공간의 비중이 미소하여 연구에서 제외한다. 작가들의 유동 관계에 주목하고 있는 본 연구의 특성에 따라 소장품 전시에 참여한 작가 역시 연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반면, SeMA의 여러 연계공간에서 개최되는 소장품 전시는 도시 전체를 순회하기 때문에 그 유동적 성격에 따라 연구 대상에 포함한다. 2019년 MMCA에서 개최된 전시 「광장」의 경우 각각 319명, 114명의 작가가 참여했다. 이처럼 대량의 작가를 소개하는 전시의 경우 작가들의 완전한 명단 확보는 물론, 그들의 활동 정보 접근에 한계가 있어 온라인으로 공개된 작가들의 명단만 연구 대상에 포함한다. 연구에 있어 GMoMA에 소개된 작가들이 다른 미술관에서 중복적으로 나타날 때, 이러한 현상을 문맥에 따라 A와 B가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개념인 ‘공유’(共有), 또는 A, B에 공통으로 속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교집합’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1.3 연구방법



[그림 1] 미술관 연결망 연구에 따른 연구모형

[Fig 1] Research model based on the study of museum networks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논문은 어떤 미술관(GMoMA: A)이 다른 복수의 미술관(B, C, D...)과 어떻게 작가들을 공유하는지 연구한다. 작가 연구는 그들의 미술장르, 미술 경향, 미술사적 가치, 활동 시기와 나이, 출생지, 활동 지역에 대한 추적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연구 대상이 되는 미술관에서 전시한 작가들의 명단을 만들어 다른 미술관들과 GMoMA 사이의 교집합 관계를 탐구한다. 이와 더불어 GMoMA에서만 소개된 고유작가들을 추적하여 그 특징을 분석한다. 생성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연구하고자 30년대 이전에 출생한 작가들을 ‘근대작가’, 30, 40년대생 작가들을 ‘원로작가’, 50, 60년대 출생한 작가들을 ‘중견작가’, 70년대 이후 출생한 작가들을 ‘젊은작가’로 구분한다. 연구는 GMoMA를 기준으로 미술관별 중요성에 따라 SeMA, MMCA, 지방미술관 그리고

GMoMA에서만 소개된 작가들을 순서대로 살펴볼 것이다.

2. 본론

2.1 2014-2023 미술관별 GMoMA와 작가 공유 현황

[표 1]과 같이 GMoMA를 중심으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모두 1,083건(GMoMA기준 총 582명)의 작가 공유가 이루어졌다. 이중 SeMA가 419건(104명, 38.7%)으로 가장 많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북서울관이 112건, 서소문관이 90건, 난지가 75건, 연계협력이 58건, 남서울관이 50건, 창고가 20건, 벙커가 14건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MMCA가 322건(169명, 29.7%)을 기록했다. MMCA의 경우 서울관이 111건으로 가장 많다. 여기에 덕수궁관 47건을 합하면 작가 공유가 모두 158건으로 서소문관을 능가한다. 다음으로 1986년 개관한 과천관이 101건으로 나타나 서울관의 관점에서 MMCA 서울과 GMoMA의 작가 공유 건수는 모두 259이다. 다음으로 고양, 청주, 창동과 같은 전시 장소가 15건에서 30건으로 조사되었다. 지방미술관을 살펴보면, SIMA 87건, DMA 84건, DAM 80건, BMA 52건, GMA 39건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GMoMA는 서울-수도권-지방이라는 미술관들의 물리적 거리와 특징에 따라 작가들을 공유한다.

[표 1] 2014-2023 미술관별 GMoMA와 작가 공유 건수를 미술관별 정리한 결과

[Table 1] Table summarizing the number of shared artists with GMoMA by museum, 2014-2023

미술관명	미술관별 작가 공유 건수							총 공유수 (작가수)	%
SeMA	북서울관	서소문관	난지	연계협력	남서울관	창고	벙커	419 (104)	38.7
	112	90	75	58	50	20	14		
MMCA	서울관	과천관	덕수궁	고양	청주	창동	-	-	-
	111	101	47	30	18	15	-	322(169)	29.7
SIMA	87	-	-	-	-	-	-	87(66)	8
DMA	84	-	-	-	-	-	-	84(64)	7.8
DAM	80	-	-	-	-	-	-	80(57)	7.4
BMA	52	-	-	-	-	-	-	52(38)	4.8
GMA	39	-	-	-	-	-	-	39(27)	3.6
합계								1,083	100

2.2 서울시립미술관(SeMA) 작가

GMoMA와 연결되는 북서울의 작가들은 권영우, 구본웅, 이대원, 장욱진, 장우성, 이중섭, 유영국, 권옥연과 같은 모더니즘 화가들이 대표적이다. 이들 중 상당수가 2019년 기획된 「근대의 꿈: 꽃나

무는 심어 놓고」라는 명화전을 통해 소개되었다. 반면, 북서울 전시에서 신학철, 손장섭, 김인순, 정정엽, 윤석남, 홍순명과 같은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작가들이 눈에 띈다. 다음으로 정현, 최민화, 박영선, 김정현, 임홍순, 유현미, 함경아, 김범, 최정화, 노상균, 안규철, 신미경, 서현석, 배영환 등 설치, 영상, 개념미술 등을 탐구하는 50, 60년대생 중견작가들과 함께, 강홍구, 조습, 홍원석, 김옥선과 같은 사진작가들이 언급된다. 이 밖에도 노순택, 한성필, 진기종, 이병찬, 이우성, 안경수 등 다양한 미술 매체와 미술 경향을 선보이는 70, 80년대생 작가들이 공유되었다. 이처럼 GMoMA는 북서울과 근대미술 및 사회적 가치에 대한 중요성이 두드러지면서 중견작가와 젊은 작가들을 통해 미술장르를 다변화한다.

GMoMA와 공유되는 서소문 작가들의 경우 백남준, 임홍순, 이우환, 김인순과 같은 원로작가들이 언급되지만, 명화전을 통해 대규모의 근대작가들을 소개한 북서울에 비해 소수이다. 반면, 윤석남, 이불, 나현, 정정엽, 강애란, 홍이현숙과 같은 여성주의 미술 경향이 뚜렷한 작가들과 함께 오윤, 임홍순, 홍순명, 박진화, 노순택, 권혜원과 같은 민중미술 또는 사회 비판적 성격의 작가들 역시 강조된다. 다음으로 강익중, 노상균, 홍경택, 홍성도, 강홍구, 정현, 고산금과 같은 몇몇 50, 60년대생 작가들이 눈에 띈다. 여기서 강익중과 고산금을 제외한 다른 작가들은 회화, 사진, 조각과 같은 평면이나 전통적 미술장르를 선보인다. 마지막으로 이병찬, 권용주, 한성필, 김익현, 홍영인과 같은 70, 80년대생 작가들이 GMoMA와 교차한다. 결과적으로 GMoMA와 서소문관은 북서울과 유사하게 사회적 성향이 강한 작가들, 중견작가들, 젊은 작가들을 공유한다.

GMoMA와 공유되는 난지, 창고, 벙커 작가들은 임홍순, 홍이현숙을 제외한 대부분이 70, 80년대생으로 젊다. 이들 중 상당수가 사진, 비디오, 설치, 퍼포먼스 등 다양한 매체를 사용하거나 여러 미술장르를 탐구한다. 대표적으로 임홍순, 홍이현숙, 안정주, 장민승, 강주리, 이불, 권용주와 같이 도시재생, 환경, 여성, 노동, 소수자 등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작가들의 존재가 뚜렷하다. 그리고 권혜원, 김희천, 이소요, 허우중, 언메이크랩, 김익현, 전미래와 같은 젊은 설치·미디어 작가들이 눈에 띈다. 다음으로 조경재, 주세균, 나현, 고산금, 제로랩, 안데스, 조습은 설치나 사진미술 작가 그리고 이우성, 김은형, 박경률, 박관택, 김재민이, 김준, 박미라, 김원진은 회화 작가들이다. 이처럼 SeMA의 소규모 분관들과 GMoMA가 공유하는 작가들은 젊고 다양하며 사회적 성격을 드러낸다.

SIMA는 마포아트센터, 예송미술관, 충무아트홀과 같이 서울시 관내 여러 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공간에서 주기적으로 전시를 개최한다. 이러한 연계협력 공간들과 공유하는 GMoMA작가들을 살펴보면, 백남준, 윤중식, 박서보, 곽덕준, 이만익, 신동원, 한운성과 같은 근현대 또는 원로 서양화 작가들이다. 다음으로 신학철, 윤석남, 정정엽, 윤정미와 같은 여성주의나 사회적 정체성 탐구 및 참여적 성격이 강한 작가들이 소수 언급된다. 북서울이나 서소문과 유사한 이러한 패턴 형성은 협력 전시 대부분이 소장품을 근간으로 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다음으로 이이남, 김신일, 이소영과 같은 미디어아트나 설치미술작가, 강홍구, 이재삼, 이우성, 박능생, 김동유, 윤정미, 송명진, 양주혜,

이혁준, 노석미, 김동철, 이정화, 임혁과 같은 회화나 사진작가들, 그리고 장민승, 박혜수, 구성연, 임택과 같은 70년대생 젊은 작가들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이처럼 SeMA의 연계협력 전시는 소장품을 바탕으로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근현대예술가나 평면 위주의 작가들을 GMoMA와 공유한다.

남서울은 김환기, 유영국, 윤형근, 권영우, 김정현, 김봉태, 구본창과 같은 모더니즘이나 추상 또는 사진 분야의 원로작가들을 GMoMA와 공유한다. 다음으로 주세균, 김준, 신미경, 이지숙, 김정숙, 정재철과 같은 도자, 조각, 공예 작가들이 언급되어 생활미술관을 지향하는 남서울의 운영 방향성을 보여준다. 또한, 유현미, 이우성, 김기라, 황연주, 노충현, 차승언, 장성은과 같은 70년대생 중심의 평면, 사진작가들의 활동이 뚜렷하다. 마지막으로 박준범, 노동식, 홍영인, 조영주, 임영주, 허우중, 안유리, 김익현, 백정기 등 설치, 퍼포먼스, 미디어 작품을 소개하는 70, 80년대생 작가들이 강조된다. 이처럼 남서울관은 모더니즘·원로작가들과 함께 생활미술, 조각, 사진에 치중하는 동시에 수많은 젊은 예술가들을 통해 다양한 예술장르를 흡수하고 있다.

2.3 국립현대미술관(MMCA) 작가

서울관과 GMoMA가 공유하는 작가들을 살펴보면, 먼저 백남준, Jennifer Steinkamp, 김희천, 권병준, 홍영인, 홍성도, 안유리, 오재우, 박준범, 안가영, 서현석과 같은 미디어아트 작가들이 강조된다. 다음으로 노순택, 강홍구, 임흥순, 박경근, 남화연, 구민자와 같이 사회적 문제를 고민하는 작가들이 언급되지만, 여성주의 작가는 제외된다. 그리고 함경아, 안은미컴퍼니, 안지미+이부록, 조소희, 양정욱, 조은지, 노경애와 같이 다양한 매체나 예술장르를 추구하는 젊은 작가들이 눈에 띈다. 여기에 김범, 박용석, 강상우, 이상민, 나현, 양정욱, 유현미, 한석경, 홍순명, 백정기와 같은 설치·공간 미술 작가들의 인지도가 강조된다. 다음으로 고낙범, 이기봉, 김보희, 문봉선, 이재삼, 박영균, 이동기, 김기라, 김옥선, 조습과 같은 평면 또는 사진 위주의 작가들을 찾을 수 있다. 언급된 작가 외에도 다양한 미술장르를 탐구하는 수많은 60, 70년대생 작가들이 GMoMA와 교집합을 이룬다. 이처럼 서울관 작가들은 SeMA 작가들과 비교했을 때 모더니즘이나 원로작가들의 인지도가 낮지만, 평면을 시작으로 영상, 설치, 사진 미술을 추구하는 젊은 작가들의 비중이 높다.

다음으로 GMoMA와 과천관은 이중섭, 김환기, 곽인식, 김병기, 권영우, 윤형근, 이우환, 정상화, 서승원, 박생광, 박서보, 하종현, 최욱경 같은 추상미술, 단색화 그리고 기타 평면 중심의 근현대 및 원로작가들과의 교집합을 강조한다. 백남준, 이건용, 성능경과 같은 비디오아트나 실험미술의 개척자들은 물론, 윤석남, 정정엽, 최민화, 김인순, 오윤, 신학철, 김정현, 강요배와 같은 여성주의나 민중미술작가들이 눈에 띈다. 이어서 양혜규, 안규철, 김범과 같은 개념미술 작가들과 함께 장민승, 김채린, 정희민, 김신일, 박민희, 이상민과 같이 디지털아트, 설치, 영상매체를 활용하는 신진작가들과의 공유가 뚜렷하다. 여기에 기술기, 김채린, 삼손 영, 정희민, 장지아, 제로랩, 홍남기, 박민희, 씨오엠, 김신일과 같은 80년대생 작가들이 강조되는 흐름에서 다장르 미술을 추구하는 60, 70년대

생 작가들을 매개로 GMoMA와 소통한다. 결과적으로 과천관은 GMoMA와 모더니즘, 원로작가, 여성주의 작가들을 비중 있게 공유하여 서울관과 차별을 이루면서도, 서울관 못지않게 풍부한 젊은 작가들을 소개한다.

덕수궁관은 GMoMA와 구본웅, 류경채, 장우성, 김환기, 이중섭, 최영림, 전혁림, 박생광과 같은 근대미술작가들, 윤형근, 이우환, 김창열, 박서보, 하종현과 같은 추상화나 단색화 작가들, 그리고 오윤, 윤석남과 같은 사회 참여적 성격의 작가들을 공유한다. 여기에 백남준, 신미경, 장민승, 권혜원과 같은 몇몇 비디오나 설치미술 작가들, 그리고 정선, 김홍도와 같은 조선시대 화가들을 GMoMA와 공유하지만, 그 수는 제한적이다. 이처럼 덕수궁은 국내 미술 흐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작가들을 중심으로 GMoMA와 소통한다.

그리고 GMoMA와 공유하는 고양·창동 작가 대부분이 70년대 이후 출생자로 회화, 미디어, 설치 미술 등 다양한 장르의 창작을 소개하고 있어 앞서 살펴본 SeMA의 난지, 창고, 벙커와 유사하다.

2.4 지방미술관 작가

2015년 개관한 SIMA의 경우 GMoMA와 윤석남, 김인순, 정정엽, 홍이현숙, 노원희, 윤정미, 조영주와 같은 여성작가들을 뚜렷하게 공유한다. 여기에 신학철, 김정현, 강요배, 김원숙, 최민화, 이해균, 류연복, 박영균, 김억과 같은 민중미술이나 사회 참여적 성격이 강한 작가들 역시 언급된다. 다음으로 강애란, 고산금, 이소영, 이선민, 이이남과 같은 설치, 디지털 프린트, 미디어아트 등 기성세대와는 다른 조형 언어를 선보이는 60년대 출생 작가들의 흐름이 나타난다. 여기에 구성연, 고창선, 이창훈, 임택, 김동현, 박혜수, 권오상, 홍기원, 조현익, 삼손 영, 신혜정, 양정욱, 김이박, 안데스, 임영주, 이병찬, 김나영&그레고리 마스, 장지아, 인세인박, 안가영, 강신대, 원성원과 같은 작가들은 설치, 퍼포먼스, 영상, 디지털 사진 등 다양한 매체를 넘나든다. 마지막으로 김창열, 정창섭, 하동철, 이건용, 서승원, 오용길과 같은 한국화, 단색화, 추상/실험미술을 탐구하는 원로 화가들 역시 GMoMA와 교차한다. 결과적으로 GMoMA는 SIMA와 여성미술, 민중미술, 지역미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젊은 작가들을 전폭적으로 수용하여 다양한 미술장르를 발전시키고 있다.

DMA의 경우 이우환, 김환기, 이중섭, 윤형근, 박서보, 유영국, 백남준, 이강소, 하종현, 이중상, 장승업, 이건용과 같은 고전미술, 모더니즘, 단색화, 실험미술 작가들을 GMoMA와 공유한다. 다음으로 최정화, 이불, 고산금, 이선민, 이세현, 신미경, 전준호, 이이남과 같은 다양한 장르의 60년대 생 작가들이 언급된다. 여기에 안가영, 양정욱, 이지연, 김나영&그레고리 마스, 이창훈, 나현, 권오상, 구성연, 이소영, 장지아, 임택, 삼손 영, 김용철과 같은 다장르 작가들과 서민정, 조습, 김기라, 박능생과 같은 사진이나 평면작가들도 눈에 띈다. 언급된 작가 중 이중상, 신미경, 김기라, 박능생 등이 충청도 출신이며 박능생만 대전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처럼 GMoMA와 공유하는 DMA 작가들은 1910년대부터 서양화를 중심으로 발전한 모더니즘이나 원로작가들의 비중이 뚜렷하며 중년·

젊은작가들 역시 균형을 이룬다. 반면, 대전 출신 작가들과 경기도와의 교집합은 한정적이다.

DAM의 경우 이중섭, 유영국과 같은 근대작가들을 시작으로 윤형근, 박서보, 김환기, 박생광, 곽인식, 최영림, 서세옥, 하중현, 김기린, 이건용, 조동환, 이우환, 김종학, 곽덕준, 이강소, 성능경과 같은 단색화, 추상화, 실험미술 작가들이 눈에 띈다. 여기서 서세옥과 곽인식은 대구 출생이며, 이건용, 이강소, 성능경과 같은 작가들은 대구미술계와의 연관성이 깊다. 또한, 윤석남, 최민화, 홍순명, 강요배, 홍명섭, 이우성과 같은 민중미술, 여성주의 또는 사회 참여적 성격의 작가들 역시 언급된다. 이어서 백남준과 같은 글로벌 작가를 시작으로 김인숙, 이이남, 임택, 오용석, 유비호와 같은 사진이나 뉴미디어 작가들 그리고 권기수, 홍경택, 이동기와 같이 미술시장에서 인기 높은 회화 작가들의 흐름을 읽을 수 있다. 다음으로 한운성, 김기라, 김석출, 배종현, 이명미, 조해준, 이세현, 안지산, 이기봉, 문인환, 김영숙, 박형진과 같은 회화작가들과 함께 구성연, 김옥선, 혁준과 같은 사진 작가들이 평면성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최정화, 나현, 안효찬, 김준, 백정기, 진기종, 홍성도, 민성홍과 같은 조각이나 설치미술 작가들 역시 GMoMA와 교집합을 이룬다. 이처럼 DAM은 GMoMA와 지역에서 활동한 근현대 및 원로작가들, 대구나 경북에서 출생했거나 활동하는 중년·젊은 작가들, 평면을 중심으로 작품 활동을 하는 작가들과의 공유가 활발하다. 그리고 지역의 특색을 반영하는 사진작가들과 조각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젊은 작가들 역시 비중 있게 수용한다.

BMA의 경우 GMoMA와 Mitsuo Kano, Akira Matsumoto, Satoshi Saito, Jiro Takamatsu 등 일본 작가들을 중심으로 한 해외작가들과의 공유가 두드러진다. 그리고 김원, 허련, 장욱진, 유영국, 이우환, 이중섭, 김환기, 김종학, 이건용, 김봉태와 같은 근대작가나 단색화, 추상미술, 실험미술 작가들 역시 공유된다. 여기에 윤석남, 조영주와 같은 여성미술 작가와 한성필, 박형근, 권오상과 같은 사진미술 작가들, 송창, 이세현과 같은 소수의 평면작가들 그리고 강애란, 박혜수, 김이박, 안가영, 정정주, 조은지, 오용석, 박형진, 전준호, 김홍석, 이이남과 같이 설치, 영상, 미디어, 퍼포먼스를 추구하는 작가들이 언급된다. 이처럼 BMA는 GMoMA와 일본작가들, 모더니즘과 원로작가들을 중심으로 교집합을 이루는 한편, 젊은 작가들 역시 양쪽 미술관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왕래한다.

GMA의 경우 백남준, 김창열, 김환기와 같은 한국 대표 작가들이 언급되지만, 앞서 살펴본 대전, 대구, 부산의 모더니즘과 원로작가들의 수준에 비해 약하다. 반면, 송창, 오윤, 박영균, 손장섭, 박진화, 송필용과 같은 민중미술 작가들과 김승, 박경근, 정정주, 최호철, 김형규, 오승우, 구성연, 배동신, 홍원석과 같이 전남·광주 출신 작가들과의 공유가 활발하다. 광주 작가들의 GMoMA 입성은 2015년에 개최된 특별기획전 「경기 팔경과 구곡·산·강·사람」과 깊은 연관성이 있는데, 앞서 언급한 작가 중 송창, 오승우, 박영균, 손장섭, 박진화, 송필용과 같은 6명의 광주·전남 작가들이 해당 전시에 참여하였다. 이처럼 GMoMA는 민중미술을 비롯한 광주지역 작가들을 폭넓게 수용한다.

2.5 GMoMA 고유작가

GMoMA에서만 소개된 작가들은 모두 251명이다. 이들을 크게 외국인 작가들을 칭하는 ‘해외작가형’, 특정 미술장르를 칭하는 ‘특정장르형’, 재외 동포를 칭하는 ‘동포작가형’, 각종 미술그룹 등을 칭하는 ‘소그룹형’, 지역 출신 작가들을 칭하는 ‘지역작가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해외작가형의 경우 대만, 일본, 유럽 등 해외 기관과의 협력 단체전을 중심으로 형성된다. 먼저, 일본의 경우 2015년에 경기창작센터와 연계하여 GMoMA가 개최한 협력 릴레이 전시를 언급할 수 있다. 여기에는 한국의 이우환과 함께 13명의 일본 작가들이 소개되었다. 독일의 경우 2017년 뮌스터에 있는 쿤스트 할레와 교류하여 Michael Van Offen, Manfred Pernice, Bjorn Dahlem과 같은 독일 출신 회화, 설치미술 작가들이 소개되었다. 2018년에는 프랑스 벽화전 「그림이 된 벽」이라는 전시가 개최되어 60, 70년대 쉬포르-쉬르파스 운동에 참여한 8명의 프랑스 작가가 소개됐다. 그리고 같은 해에 동두천시 보산역 지하철 교각 그리고 외국인 관광특구 거리에서 스페인, 프랑스 작가들이 협력한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진행되어 경기도의 지역성을 강조하였다. 2019년에는 대만 가오슝미술관과 연계하여 대만 작가 10여 명을 소개하였다. 이처럼 GMoMA는 해외작가나 여러 국가에 있는 기관들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경기도만의 작가군을 형성한다.

특정장르형의 경우 2017년에 섬유, 도자, 유리, 금속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공예를 소개하는 「크래프트 클라이맥스: 경기 현대공예 2017」이라는 전시에 참여한 32명의 작가가 중심이다. 이 중 20명이 GMoMA에서 독점적으로 소개되어 공예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다.

GMoMA에서 2018년에 개최된 「코리안 디아스포라, 이산을 넘어」라는 전시에는 중국, 일본,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에 거주하는 20여 명의 작가가 소개되었다. 이러한 동포작가들은 19세기 중엽에 러시아, 중국, 미국, 일본으로 이주했던 구(舊)이민자들과 그들의 후손이다. GMoMA는 이처럼 디아스포라 작가들의 전시를 통해 한민족에 대한 정체성과 관련된 담론을 유도한다.

2019년에는 80년대 서울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했던 22개의 소집단을 대규모로 소개한 경기아트프로젝트 「시점時點·시점視點-1980년대 소집단 미술운동 아카이브」가 개최됐다. 이 전시에는 소집단인 POINT_시점·시점, 수리미술연구소, 현대미술상황회, 현실과 발언, 임술년 등 22개 단체가 소개되어 미술 단체를 중심으로 한 ‘서울-수도권’ 개념을 강화한다.

지역작가의 경우 2017년 경기 천년 작가 신진공모전을 통해 강보라, 강상우, 강호연 등 28명이 소개됐다. 이 중 18명이 본 연구 대상이 되는 여러 국공립미술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였지만, 다른 10명의 작가는 GMoMA에서만 작품을 선보였다.

3. 결론

GMoMA의 작가선정은 대체로 해당 미술관을 중심으로 하여 물리적으로 가까운 미술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수많은 GMoMA 작가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도 그

들의 다양한 예술적 스펙트럼을 통해 경기도를 전국 미술관들과 연결한다. GMoMA의 관점에서 다른 국공립미술관들과의 네트워크 구성은 전반적으로 작가들의 세대적 관점, 지역적 특징, 미술사적 가치 그리고 미술경향 등을 중심으로 고찰될 수 있다. 중년·젊은 작가들은 덕수궁관을 제외한 모든 미술관에서 두드러지며, 개념미술, 설치미술, 비디오아트, 사진 등 다양한 장르를 통해 회화 중심의 원로작가들과 구별된다. 근대작가는 MMCA 덕수궁관과 과천관을 중심으로 지방미술관과의 연관성을 강조한다. 추상화, 단색화, 실험미술 작가들은 GMoMA를 MMCA, 대전, 대구, 부산과 연결하며, 과천관, 북서울관, DAM, SIMA, 광주는 사회적 미술이나 여성주의를 통해 경기도와 소통한다. DMA는 평면회화와 지역 중년·젊은 작가를 중심으로 GMoMA와 연관성을 드러내며, 대구와 부산은 중년·젊은 작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부산의 경우 GMoMA와 일본 작가들을 뚜렷하게 공유하고 있다. 이 밖에도 GMoMA는 다른 국공립미술관들이 소개하는 다양한 경향의 작가들을 폭넓게 수용하면서 예술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다.

다른 미술관들과의 적극적인 교류와 소통의 과정에서도 GMoMA 전체 작가 중 절반가량은 경기도에만 머무르고 있다. 이런 작가 중 상당수는 외국인, 동포 또는 특정한 소집단 운동과 관련된 인물들로 GMoMA의 차별화된 큐레이션 방향성을 보여준다. 또한, 사진, 판화, 조각, 공예, 벽화 등 특정 장르에 대한 집중적 수용을 통해 매체의 다양성을 강조한다.

결과적으로 미술관의 특징이나 정체성은 기관 고유의 예술 경향과 함께 서로 다른 예술적 코드와 배경을 지닌 작가들을 특정한 목적과 의도 아래 일정한 비율로 조합함으로써 형성되는 복합적 결과물이다.

References

- [1] J. Y. Kim, "The Second Wave of Public Art Museum : Envisioning a New Future for Museums", *Monthlyart*, vol. ED-479, December 2024, pp. 56-57, doi: 10.1109/PGEC.1967.264697.
- [2] J. A. Kim, "A Study of Korean Identities through the Exhibitions of Leeum, Samsung Museum of Art", *Association of Western Art History*, vol. ED-45, August 2016, pp. 119-148, doi: 10.16901/jawah.2016.08.45.119.
- [3] J. H. Cheong,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onness and Identity through the Comparison of Lee Ufan Space and Lee Ufan Museum", *The Journal of Art and Culture Studies*, vol. ED-15, no. 15, December 2019, pp. 139-159, doi: 10.18707/jacs.2019.12.15.139.
- [4] H. R. Lee, "The Effects of Identity Fit between Museum and Exhibition on Museum Place Attachment -Focusing on University Students in Seoul-", *Culture and Convergence*, vol. ED-45, no. 4, April 2023, pp. 333-347, doi: 10.33645/cnc.2023.04.45.04.333.